



오리농장 HACCP의 올바른 접근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농장2팀 이경순 팀장

이제까지 오리농장에서 HACCP을 적용하기 위하여 HACCP의 개념 및 체계를 설명하고, 선행요건프로그램 및 HACCP 7원칙 12절차의 적용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최근 AI 발생으로 인하여 현장 심사가 제한되어 있지만 심사대기중이거나 HACCP 지정을 준비하는 농장들이 많은데, 오리농장의 지정심사를 실시하면서 많이 나온 지적사항 설명을 통해서 HACCP 적용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농장에서 효과적인 HACCP시스템의 적용을 위해서는 가축사육의 각 과정에서 관리해야 할 일반적인 위생관리 기준인 “선행요건프로그램(Pre-requisite program, PRP)”이 적절히 운영되어야 한다. HACCP 적용에 대한 선입견 중 하나가 선행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추가시설의 설치로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과, 농장의 규모, 인력 구조와 상관없이 모두 동일한 형태(양식)의 무리한 기록물을 운용해야 된다는 부담감이다.

그러나 이는 가축사육단계 HACCP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접근함으로써 발생된 오해이다. 물론 위해를 관리하고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동화된 고가의 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일 수는 있으나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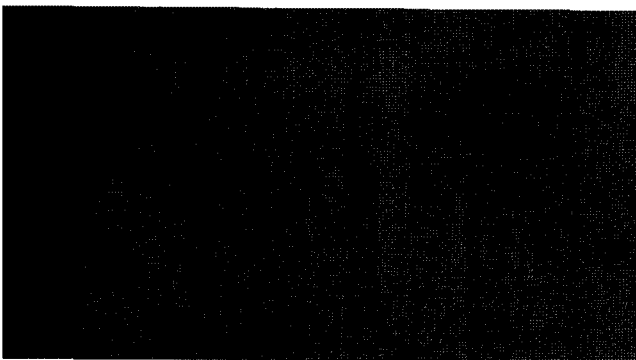
농장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본적인 시설 및 장비를 가지고 적절한 기준에 의거하여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한다면 많은 추가 비용 없이도 가능하다.

HACCP 평가기준에는 관련법이나 규정상 농장에서 운영하고 있어야 하는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이런 사항들도 HACCP 때문에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한가지 예로 HACCP을 적용하면서 소요된 비용에 대해 농장 대표님께 질문을 하면 차량소독기 설치비용을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데 차량소독기는 HACCP을 위해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HACCP 적용 이전에 차단방역을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상에 설치 운영토록 되어 있는 사항이다.

기록내용 역시 농장 운영에 맞도록 형식은 갖추면 되는데 기록에 관해서 한가지 유의할 점은 대부분 농가들이 기록을 하는 것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부담을 갖고 있다.

하지만 기록은 기록을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록은 내 농장의 운영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나중에 기록들을 한 눈에 파악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차단방역과 관련해서는 차량소독기의 실제 운영 및 방명록의 기록 미흡, 방문자를 위한 방역복 및 장화 준비 미흡 사항이 많다. 차량 소독기는 상시 작동이 가능토록 하여야 하며, 특히 동절기에 동파의 우려나 작동이 안될 경우 보완대책을 함께 수립하여야 한다.

방명록은 농장 방문자라면 빠짐없이 기록되어야 하는데 심사를 나가보면 항상 누락사항이 있기 마련이다. 방명록은 AI와 같은 전염병발생시 역학조사 및 차단방역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농장 대표는 방문자들이 반드시 방명록을 기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오

리농장에서 미흡한 부분 중에 하나가 농장방문자를 위한 방역복 및 장화준비 사항이다. 대개 일회용 방역복을 사용하지만 농장 전용작업복을 활용할 수도 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개정되면서 가축사육시설 방문자는 소독을 실시하고 방재복을 입도록 의무화되었다.

오리농장에서 미흡한 사항중의 하나가 바로 방조망 시설이다. 대부분 일부만 방조망 시설이 되어 있거나 시설이 노후되어 제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지난해부터 끊임없이 축산농가를 괴롭히고 있는 구제역과 AI 발생을 계기로 철저한 차단방역이 무엇보다도 우선한다는 것을 농가 스스로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할 것이다.

농장 위생관리는 HACCP 적용을 하는 농장과 적용을 하지 않는 농장과의 가장 큰 시각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농장 주변 및 오리사 관리의 청결은 기본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오리사 입구의 발판소독조 운영이 미흡한 경우가 있으며, 사육중인 오리군과 사육시설에 대한 살모





축산수첩

오리농장 HACCP의 올바른 접근

넬라 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농장을 운영 하면서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사항이다.

관리자에 대한 위생 및 방역교육 역시 미흡한 편인데 주기적인 교육은 사고의 전환은 물론 평상시 위생 및 방역에 대한 습관화를 통해 가축전염병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오리농장의 경우 대개 부부가 경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스스로 공부한 것을 기록한다고 생각하면 쉬울 것이다.

사료, 동물용의약품 및 음수관리 부분에서는 특히 약품 사용 기록 및 관리부분에서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는데 사료첨가등 동물용의약품 사용시 기록이 누락되지 않아야 하고, 주기적인 재고관리가 필요하다.

질병관리에서는 도입 초기 및 주기적인 임상관찰 기록 미흡사항이 많다. 그 외에도 주기적인 수의사의 관리 기록 미흡 등이 있다.

반입 및 출하에서는 새끼오리의 도입처, 질병검진 내역, 예방접종 기록등 관련기록사항을 기록 및 보관에 대한 미흡사항이 많았고, 출하일지에 출하처, 운반자, 휴양기간 및 항생제무첨가사료 급여일의 확인 기록도 일부 미흡하였다.

HACCP 관리에서는 우선 HACCP 팀구성 및 역할에 대한 명시가 미흡한 경우가 많다.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지가 명확해야만 어느 한 사람에게 업무가 집중되는 것을 막을수가 있고 임무수행 또한 가능할수 있다.

사양관리절차도 작성이 미흡한 경우는 위해분석 또한 미흡할 수밖에 없다. 사양관리절차도에 따라 위해분석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농장의 운영형태에 맞는 사양관리 절차를 작성해야 한다. 농장평면도 작성시 사람, 차 및 가축의 이동동선을 비롯하여 고시에 명시된 사항들이 상세히 표시되어야 한다. 모니터링 기록 사항이 미흡한 경우가 일부 있다.

오리농장에서는 대개 입추시 SE와 출하시 항생제 관리를 주로 하고 있는데 입추시 SE 검사 성적서를 확인한 결과를 기록해야 하는데 HACCP을 적용하는 초기에는 무엇이 모니터링인지 의미를 잘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 같다.

HACCP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HACCP 관리시스템에 대한 개념 이해가 필요하다. 그렇다고 HACCP에 대한 깊은 이론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어떤 행위나 기록을 하는데 있어 왜 해야하고,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HACCP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용할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HACCP 심사시에도 HACCP 관리시스템에 대한 개념 이해를 물어보는 것이다.

HACCP을 적용한다고 해서 아주 새롭게 해야 할 것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기존 농장관리에서 조금 더 청결하게 조금 더 방역과 질병관리에 노력을 더 하고, 소비자가 안전한 축산물을 먹을수 있도록 위해요소에 대한 확인기록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장일을 하면서 이러한 기록을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누구나 첫술에 배부를수는 없을 것이다. 조금씩 조금씩 익숙해져가면서 기록이 습관화되어간다면 HACCP 적용을 함으로써 농장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것도 알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